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꾀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볕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되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나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륙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소냐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李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냐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흩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작자 미상, ｢화전가｣-  \* 정관: 솥.  **(나)**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괘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뫼**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긔 좋은가 하노라  -작자 미상-  \* 동문에 괘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다)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제2수>  -채헌, ｢석문가｣- | |